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에서 학교와 사회 비판

안진태 (강릉대)

I. 들어가는 말

세계 어느 나라나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문제의 근원으로 자주 교육제도가 지적 되고 있다. 전인적인 교육이 아니라 단편적인 실력 위주의 교육 등이 중심이 되다보니 청소년의 성격 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평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를 규명하고자 헤르만 헤세의 초기 소설 『수레바퀴 밑에서 Unterm Rad』를 학교와 사회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수레바퀴 밑에서』의 시대적 배경과 자서전적 요소 등 다양한 동기 Motiv가 고찰된다. 여기서 한스 기벤라트 Hans Giebenrath와 헤르만 하일너 Hermann Heilner 두 주인공의 관계 구조와 소설의 시도 동기인 이 두 주인공과 작가 헤르만 헤세 자신의 유년기의 파괴가 서로 비교되어 교육학적·사회학적·심리학적으로 규명되고 있다. 또 이 연구와 연관되어 작품 속에 담긴 빌헬름 2세 시대의 학교와 사회 구조도 비판되고 있다.

II. 작품의 요약

헤르만 헤세의 초기 소설 『수레바퀴 밑에서』는 1904년에 『새로운 취리히 신문 Neue Züricher Zeitung』에 처음으로 발표되었고, 1906년에 책의 형태로 발간되었다. 이 작품에는 중개업과 대리점업을 경영하는 명예욕이 강한 부친의 아들로 재능있지만 성격이 매우 섬세한 청소년 한스 기벤라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해마다 열리는 ‘헤키툼베 Hekatombe’¹⁾는 주(州)에서 특히 머리가 뛰어난 청소년

을 선발하는데, 매우 편협한 소도시에서 성장한 한스 기벤라트가 자신의 작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이 시험의 응시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치열한 경쟁에 대한 준비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연약한 한스 기벤라트의 체력은 더욱더 소모된다. 부친과 마을 교회의 목사, 교사 등의 명예욕에 이끌려서 한스 기벤라트는 이 시험에 2등으로 합격하는데, 그때 그는 신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다.

이렇게 우수하게 선발된 한스 기벤라트는 마울브론 신학교 Klosterseminar Maulbronn에 무료장학생으로 공부하는 행운을 획득하게 된다. 그는 처음에는 모범 학생으로 매우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나 일찍이 성숙하고 작가적 재질이 있는 신학교 동급생인 헤르만 하일너와 교제를 하면서 한스 기벤라트의 삶의 방식은 변하게 된다. 하일너와 신학교 교장과의 논쟁에서 한스 기벤라트는 불안한 생각에서 본의 아니게 하일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결과 그와 사이가 멀어지자 심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다가 한 동료 학생 힌딩거 Hindinger의 죽음 이후 하일너와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학적 소질 등 사고가 깊은 하일너의 영향에서 또 자신의 사춘기의 시작으로 인해 한스 기벤라트의 학업 성적은 점차 하락된다. 교장의 계속적인 압력으로 하일너가 신학교를 떠나게 되자 혼자 남게 된 한스 기벤라트는 더욱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을 위해 집에 보내진다. 그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어 마지막으로 부친의 촉구에 의해 기계공이 되기 위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스 기벤라트의 삶의 불행이 전개된다. 이뤄지지 못한 첫사랑과 기계공 견습생 기간에 갖게 된 동료와의 술자리가 이 청소년을 최종적으로 좌절시켜 그는 결국 강에서 익사한 시체로 발견된다.

III. 세기 전환기의 교육 소설

『수레바퀴 밑에서』에서 한스 기벤라트는 학교라는 조직을 구성하는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는 그에게 아무런 위안도 줄 수 없고, 치유될 수도

1 Hermann Hesse, *Unterm Rad*, Gesammelte Werke in 12 Bänden, Bd. 2, Frankfurt am Main 1970, S. 9. (이하 UR로 줄임)

‘헤카톰베 Hekatombe’는 수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예식으로 여기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빗대어 이르는 말.

없는 강압적인 조직으로 반영된다. 사회도 그에게는 비합리적이어서 어떠한 사회 규범도 납득 될 수 없다. 우리의 합리적인 사회의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현존재의 모순적 운명의 상황을 은폐시킨 제도에 불과하므로, 사회로 묘사되는 것은 그것의 불합리적이고 비논리적 제도들을 변형시킨 것이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필연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순적인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본 작품에서는 헤르만 헤세의 “자서전적 삶이 시적 실체로 옮겨지는 작업”²이 진행되거나, 자서전적 요소 외에 사회적 및 여러 다른 형식으로 윤곽이 뚜렷한 사건의 개인적인 묘사, 즉 빌헬름 2세 시대의 개인과 사회 사이의 긴장에 찬 관계가 묘사되고 있다.³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작품 『수레바퀴 밑에서』에서 이 시대의 교육과 사회 제도 등을 신랄하게 다뤄서 세기말의 독일어권에서 유행된 ‘경향 문학 Tendenzliteratur’에 공헌하고 있다.⁴

1. 학교 제도의 비판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세기 전환기에 문학 작품에서 그때까지 낯설었던 새로운 주제가 형성되고 있었다. 문학의 변두리에서만 존재했던 학생과 학교의 문제가 이 시기에 문학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이러한 내용을 다룬 주요 작품으로 에밀 슈트라우스 Emil Strauß의 『친구 하인 Freund Hain』(1902), 라이너 마리아 릴케 Rainer Maria Rilke의 소설 『체조 시간 Die Turnstunde』(1904), 하인리히 만 Heinrich Mann의 『운라트 교수 혹은 폭군의 종말 Professor Unrat oder das Ende eines Tyrannen』(1905) 그리고 로베르트 무질 Robert Musil의 군사 학교에 관한 소설인 『제자 토크레스의 착란 Die Verwirrungen des Zöglings Törleß』(1906) 등이 있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도 내용적으로 볼 때 이들 작품 군에 속한다. 이들 작품의 내용처럼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서는 성장기의 청소년을 수용하는 학교 제도가 비판되고 있다. 세기 전환기 직후의 불합리한 학교 제도가 소설의 주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2 Heinz Stolte, *Hermann Hesse, Weltschau und Lebensliebe*, Hamburg 1971, S. 44.

3 Fritz Böttger, *Hermann Hesse, Leben-Werk-Zeit*, Berlin 1974, S. 135.

4 Joseph Mileck, *Hermann Hesse-Dichter, Sucher, Bekenner*, München 1978, S. 37.

헤르만 헤세의 “학교”라는 특이한 주제에서 작품 속 각각 인물의 사상과 행동은 그 당시의 일반적인 교육 풍토의 암시로 전개 되고 있다. 그 당시 학교의 교육에는 소수의 학생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교육 제도 전체가 비인간적인 교육제도로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원래 인문주의적 교육 *humanistische Bildung*의 이상을 목표로 했던 학교는 그 전통을 그 시대에 재현할 수 없었다. 모든 분야에서 오직 측정될 수 있는 성과만이 인정되어 자연에서 벗어난 성직의 명예욕만이 일깨워졌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의 타고난 개성의 개발은 불가능했다. 즉 모두가 평등(무차별)과 그 결과로 비생산성의 맥락에서 교육된 결과 개인의 타고난 능력은 개발될 수가 없었다. 헤르만 헤세는 이러한 양상을 『수레바퀴 밑에서』에서 매우 요약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교사는 자기가 맡은 반에 한 명의 천재보다는 차라리 여러 명의 멍청이들이 들어 오기를 바라기 마련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교사에게 주어진 과제는 비범한 정신의 인물이 아닌, 라틴어나 산수에 뛰어나고, 성실하며 고루한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가 더 상대방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가! 교사가 학생 때문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학생이 교사 때문인가! 그리고 누가 더 상대방을 억누르고 괴롭히는가! 또 누가 상대방의 인생과 영혼을 헤치고 더럽히는가! 이러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마다 누구나 분노와 수치를 느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Ein Schulmeister hat lieber einige Esel als ein Genie in seiner Klasse, und genau betrachtet hat er ja recht, denn seine Aufgabe ist es nicht, extravagante Geister heranzubilden, sondern gute Lateiner, Rechner und Biedermänner. Wer aber mehr und Schwereres vom andern leidet, der Lehrer vom Knaben oder umgekehrt, wer von beiden mehr Tyrann, mehr Quälgeist ist und wer von beiden es ist, der dem anderen Teile seiner Seele und seines Lebens verdirbt und schändet, das kann man nicht untersuchen, ohne mit Zorn und Scham an die eigene Jugend zu denken.⁵

이 인용 내용은 교육의 본질적인 비판, 즉 개인의 타고난 특이한 능력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단체를 위한 학습 내용의 전달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교사들을 비판하여 교육의 본질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속에는 학교의 체험이 강

5 UR, S. 97 f.

렬한 부정적 추억으로 남는다는 매우 신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학교의 비판으로, 특히 헤르만 헤세 자신의 체험이 논평적으로 삼입됐다고 볼 수 있는 학교 제도의 신랄한 비판으로 이 소설은 오늘날에도 현실성 있게 수용되고 있다.

헤르만 헤세 당시의 상황이 오늘날에는 실제로 또는 피상적으로라도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떻든 오늘날에도 입시에 필요한 성적만을 위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2. 사회 규범의 비판

작품에서 교육 제도의 비판은 헤르만 헤세 자신이 제기한 비판의 반영이다. 그런데 작품에서 비판은 학교 제도는 물론이고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비판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에 의해 형성된 교육 이념이 인간 본연의 정서에 부정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 공공의 규범이 잘못된 개념을 굳히고 있다. 따라서 학교와 함께 빌헬름 2세 시대의 사회의 형상이 헤르만 헤세라는 한 대변자에 의해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모, 교사와 성직자들이 피보호자에 대한 이해나 동감의 부족으로, 또 자만심, 접근불가능성과 위선 등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이다.⁶

따라서 『수레바퀴 밑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배려가 등한시되어서 청소년의 성장이 파괴되는 내용을 실제적으로 제시하는 냉소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한스 기벤라트의 죽음으로써 이러한 인간성을 등한시하는 속물 근성적 형상, 전력을 다해 추구하는 명예욕 등이 비평되고 있다.

“또 한스 기벤라트의 죽음에서 신분적 상승은 오직 인간성의 희생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암시된다.”⁷ 소설의 제목 “수레바퀴 밑에서 Unterm Rad”⁸가 이러한 양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제목은 한 미성숙된 소년이 사회의 수레바퀴에 깔려 몰락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현실이 수레바퀴에 깔리듯이 몰락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헤르만 헤세는 상

6 Joseph Mileck, a.a.O., S. 37.

7 Fritz Böttger, a.a.O., S. 133.

8 원래 독일어 용어 “수레바퀴 밑으로 가다 unter die Räder kommen”는 “파멸하다(영락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

실에 대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현대 문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간성이 없는 발전의 반대 개념인 ‘태초적인 것, 원시적인 것, 도시를 벗어난 시골적인 것으로 회귀’⁹⁾에 대한 열망이 나타나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에 연관된 비난이 마침내 일반적인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상승되어 이 소설은 그 당시의 모순된 사회 및 잘못된 교육 제도를 동시에 비평하고 있다. 교육이 사회에 대한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의 현실이 교육에 영향을 미쳐 이를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IV. 작가의 자기 투영

작품의 여러 사실들을 분석해 보면 『수레바퀴 밑에서』의 줄거리는 헤르만 헤세의 자서전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 그 자신의 추억들이 이 작품의 토대가 된 것이다. 작가 자신의 의도가 담긴 『수레바퀴 밑에서』는 결국 헤르만 헤세의 괴로운 추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서전적 틀에서 보면 개인을 토대로 한 시대적 비평이 담겨 있다. 이 자서전적 묘사는 세기 전환기에 성인이 되는 첫 문턱에 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의 적절한 투영인 것이다. 즉 주인공 개인의 체험을 통해 그 당시의 모순된 교육 사회제도가 비평 되고 있다. 헤르만 헤세 자신의 독특한 유년기가 그 시대 유년기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 자신의 독특한 체험이 없이 이 소설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결론이 생긴다. 그런데 작품에서 두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와 하일너에서 헤르만 헤세의 다양한 성격의 묘사 후에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서전적 방법이 지양되는데 이는 이들 두 주인공의 운명이 작가의 성장 과정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에서 고통스런 추억에서 해방이 전개되고 있다.

1. 헤르만 헤세와 한스 기벤라트의 유사성

『수레바퀴 밑에서』의 줄거리와 이 작품의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의 삶의 여정

9 Heinz Stoltz, a.a.O., S. 41.

을 작가 헤르만 헤세의 유년기와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다. 헤르만 헤세의 학교와 젊은 시절의 경험이 이 소설의 줄거리의 틀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스 기벤라트처럼 헤르만 헤세 자신도 주시험 Landexamen에 합격하여 1891년에서 1892년 사이에 마울브론 신학교 Kloster Maulbronn에 다녔다. 이 신학교를 마친지 11년 후인 1903년 여름에 헤르만 헤세는 『수레바퀴 밑에서』 집필을 시작하였다.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처럼 헤르만 헤세는 학업을 마친 후에 브라질로 이민가려는 생각 속에 “기계 공학”을 공부했다. 이렇게 헤르만 헤세와 한스 기벤라트의 비슷한 삶의 여정 외에 또 다른 유사점이 있는데 이는 신체적 허약성이다. 한스 기벤라트처럼 헤르만 헤세도 자주 두통을 겪었으며 신체 기능이 허약했다. 또 헤르만 헤세는 한스 기벤라트처럼 호머 Homer¹⁰나 역사, 라틴어를 좋아했으며 마울브론 신학교에서도 한스 기벤라트의 침실 이름과 같은 헬라스 Hellas의 이름을 지닌 침실에서 기거했다.

또 한스 기벤라트의 출생 도시의 묘사가 헤르만 헤세의 고향 칼프 Calw와 유사하다. 한스 기벤라트가 신학교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은 헤르만 헤세가 건강을 해친 후에 마울브론 수도원에서 떠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2. 헤르만 헤세와 하일너의 유사성

작품 속의 또 다른 주요 등장 인물인 하일너와 헤르만 헤세의 유사성의 돋보이는 내용으로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와 헤르만 하일너 Hermann Heilner의 이름이 두운법 Alliteration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한스 기벤라트의 이름인 한스Hans는 헤르만 헤세의 동생인 한스 헤세 Hans Hesse의 이름과도 일치한다. 헤르만 헤세의 이 형제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작품 『수레바퀴 밑에서』에 나타나고 있다.

매우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상급 학년에서는 청춘의 고뇌에 빠져 방황하는 젊은이가 헤어날 수 없는 방황 끝에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거나 물에 뛰어들어 자살함으로써 짊어지고 어두운 탈출구를 찾기도 한다.

10 UR, S. 74.

Gelegentlich, doch selten und nur in der älteren Klasse, kommt es etwa auch einmal vor, daß irgendein ratloser Junge aus seinen Jugendnöten einen kurzen, dunkeln Ausweg durch einen Schuß oder durch den Sprung in ein Wasser findet.¹¹

헤르만 헤세의 언급에 의하면 자기 형제의 고통과 자신의 체험이 『수레바퀴 밑에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서 헤르만 헤세의 신학교에서 이탈이 작품에서 하일너의 신학교에서 도피로 암시되며 또 이들 둘의 “문학적 재능”¹²도 서로 일치한다. 결국 작품 속의 하일너의 성격이 헤르만 헤세의 성격을 대신하여 이들 두 성격은 그 당시의 교육제도 등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젊은이들의 정신 세계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V. 동기와 인물

1. 등장인물 분석

작품의 등장인물 중에서 한스 기벤라트와 하일너의 성격만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물론 작품의 전 과정에서 한스 기벤라트가 중심적 인물이다. 그러나 마울브론의 신학교 시절에 이들 둘은 서로 동등하게 등장하고 있다. 하일너는 “작가나 문예 애호가 Dichter und Schöngeist”¹³이면서 “정망스러운 면이 있다[...] der den genialen Leichtsinn auf seine Fahne geschrieben hatte”¹⁴고 묘사되어 있다.

한스 기벤라트도 연약한 신체와 약간 출세주의 근성이 있으며 또 망상적인 성격도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들 주인공들의 발전해가는 우정의 대화에 이들의 성격과 성장 내용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하일너는 한스 기벤라트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한스 기벤라트는 이 친구의 영향력을 수용하여 적응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이들 두 인물의 우정 관계는 매우 두텁게

11 UR, S. 89.

12 UR, S. 7.

13 UR, S. 66.

14 UR, S. 70.

진행된다. 이 우정이 한스 기벤라트의 전체적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신학교에서 하일너가 사라지자 한스 기벤라트는 의지할 데가 없어 파멸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이들 둘은 유년기에서 자신의 입지를 추구하는 성인의 초기 단계에 위치해 있다. 이들 두 주인공은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지만 이들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 즉 하일너는 매우 반항적이며 자신을 관찰시키는 성격이지만 한스 기벤라트는 연약하고 소극적이며 유보적인 성격이다. 따라서 이들 간에는 “이중적 자기 투영 doppelte Selbstprojektion”의 법칙이 심리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서로 양극적인 성격인 것이다. 이는 작가 헤르만 헤세의 유년기의 성격 특징이 두 인물로 나뉘어져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극적 분열 polarische Spaltung¹⁵의 법칙이 헤르만 헤세의 문학의 대표적 특징이다. 예를 들어 『페터 카멘친트 Peter Camenzind』에서 주인공 페터 카멘친트와 그의 친구 리하르트의 관계가 양극적 상황이 되고 있다. 『데미안 Demian』에서 주인공 데미안과 에밀 싱클레어도 이러한 양극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성격의 이중적 대립 형상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Narziß und Goldmund』의 두 주인공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사이에서 특히 돋보인다.

이러한 이중적 분열은 종종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의 구분으로 유도된다. 『수레바퀴 밑에서』에서도 한스 기벤라트는 우선 밝고 건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세계에 속한다. 헤르만 헤세의 삶에서 죽음과 대립적인 요소가 한스 기벤라트로 변형되어 상징적으로 묘사된 것이다.¹⁶ 이와 반대로 하일너는 어둡고 우울한 세계를 대표한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가 작품에서 하일너가 사라질 때까지 전개되는데 그가 사라진 이후에 하일너의 발전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언급된다.

이 열렬적인 소년은 천재다운 시도와 방황을 거듭한 끝에 엄격하고 정숙한 규율 속에서 삶의 고뇌를 몸에 익혔다. 그래서 비록 위대한 인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성인은 되었으리라.

Den leidenschaftlichen Knaben nahm später, nach mancherlei weiteren Geniestreichen und Verwirrungen, das Leid des Lebens in eine strenge Zucht, und

15 Heinz Stolte, a.a.O., S. 44.

16 Joseph Mileck, a.a.O., S. 39.

es ist, wenn nicht ein Held, so doch ein Mann aus ihm geworden¹⁷

이렇게 한스 기벤라트와 하일너 두 인물은 헤르만 헤세의 자서전적 영혼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한스 기벤라트는 헤르만 헤세의 과거이고, 하일너는 헤르만 헤세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행하고자 할 때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한스 기벤라트와 하일너의 성격은 자세히 묘사되는 반면에 조연적인 인물들은 대강 묘사되고 있다. 즉 조연적인 인물들은 매우 일반적으로 자세하지 않고 대충 개략적으로 묘사되어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다만 어떤 특정한 행동의 전형과 삶의 견해 배경 역할만 할 뿐이다.

문예 애호가인 마을 교회의 목사, 편협 고루한 라틴어 교사, 신앙심이 두터운 구두 수선공, 빈곤하면서도 희극적인 면이 있는 부친 등 작품 속의 성인들은 모두 어떤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들은 무엇인가를 논증하기 위해서 등장하며, 망상적이지 않지만 배경이 없다.

Alle Erwachsenen in diesem Buch-der schönggeistige Pfarrer, der bornierte Lateinlehrer, der pietistische Schuster, der kläglich komische Vater-alle beweisen etwas, sind da, um etwas zu beweisen, lassen nicht träumen, sind hintergrundlos.¹⁸

예를 들어 구두 수선공 플라이크 Flaig는 신앙심이 강한 경건주의자로 한스 기벤라트의 어린 시절의 삶의 혼란에 이해심이 많은 시선으로 대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부친, 대부분의 교사들과 마을 교회의 목사는 성인(成人)의 강력한 명예욕의 화신으로 자연을 인식하거나 예술을 실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삶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따라서 『수레바퀴 밑에서』는 근본적으로 볼 때 개개인의 성격이 비평 되는 심리학적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외부 세계와 조연적 인물들은 주로 잘못된 길로 인도된 사건의 드라마적 배경을 이룬다. 조연적인 인물들, 특히 성인들의 태도는 한스 기벤라트의 행동과 종말, 그의 체험에 강요되는 배경의 역할을

17 UR, S. 116.

18 Julie Speyer, Die Schaubühne, Jg. 2, Nr. 27 vom 5. 7. 1906, S. 15 f., in: Adrian Hsia(Herausgeber), *Hermann Hesse im Spiegel der zeitgenössischen Kritik*, Bern und München 1975, S. 72.

하고 있는 것이다.

2. 자연의 역할

줄거리의 전개에서 자연은 한스 기벤라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한스 기벤라트의 유년기에 자연은 그의 정신적 성장에 큰 배경이 되는 것이다. 유년기에 그가 좋아하던 취미는 낚시와 수영으로 그는 동네의 강에서 이들을 즐겼다. 또 숲에서의 산책에서 그는 다양한 향기를 즐기며 여러 나무와 덩굴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운 체험은 모두 한스 기벤라트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유년기에만 존재한다. 다양한 종류의 공부로 가득 찬 신학교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의 자연친화적인 관심은 사라지게 되고 자유투런 날들의 정서는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의 상실은 유년기의 상실에 결정적이다.

무의식적 삶인 자연이 의식적인 삶인 학교 교육으로 상실되면서 자연의 매력은 한스 기벤라트에게서 사라지는 것이다.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한스 기벤라트의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자연의 수확인 과즙 짜는 일은 이미 상실된 자연을 붙잡으려는 마지막 반항이다. 그러나 전에는 그에게 강한 흥미를 불러 일으켰던 과즙 짜기도 이제 자연을 떠난 한스 기벤라트에게 더 이상 활기를 주지 못한다. 상실된 유년기와 인간과 자연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에서 볼 때 『수레바퀴 밑에서』는 낭만주의 Romantik 문학에 가깝다.

3. 유년기의 상실

앞에서 언급된 하일너와의 우정, 특히 학교 생활, 과거에 즐기고 의지했던 자연의 점진적인 배제 그리고 사춘기의 시작 등은 한스 기벤라트의 몰락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들 여러 요소로 인한 유년기의 상실은 이 소설의 중심적 관점이다.

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순탄해야 할 성장 과정이 여기서는 인위적인 교육 등으로 매우 부자연스럽게 강요되고 있다. 한스 기벤라트는 모친의 정과 보호가 없이 단지 부친 슬하에서만 성장하나 그의 유년기는 불행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그는 낚시, 수영과 토끼 사육 등 자연과 친근하게 유년기를 보낸다. 그리고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학생이지만 천재는 아니다.

그런데 마을 교회의 목사, 교사와 부친 등 그의 교육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허황된 명예욕에 의해서 한스 기벤라트는 점점 더 좋은 학교 성적을 얻도록 강요된다. 이 결과 자연친화적인 한스 기벤라트의 성격은 점점 진지하지 않은 망상적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눈을 떠 활기를 찾거나 깊이 성찰하는 청소년 대신에 “먼지 속에 메마른 책의 유령 staubtrockenes Büchergespent”¹⁹의 형상으로 성장하게 된다. 교육적 성과로만 판단하는 성인들이 자연친화적인 소년의 영혼을 파괴하는데, 이러한 교육적 판단에는 소년의 행위와 미래에 대한 어른들만의 편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병든 한스 기벤라트는 결국 두 번째의 비현실적인 유년기를 겪게 된다. 유년기를 다시 한 번 과거 추억으로 되살려 생기를 얻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파괴된 개인에 대한 짧은 반항일 뿐 과거의 추억은 다시 소생되지 못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작품에 나무의 비유로 잘 나타나 있다.

위 줄기가 잘라진 나무는 뿌리 근처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움터 나온다. 이처럼 왕성한 시기에 병들어 상처 입은 영혼 또한 꿈으로 가득 찬 봄날 같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마치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어 끊어진 생명의 끈을 다시금 이을 수 있기라도 하듯이. 뿌리에서 움튼 새싹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지만 그것은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생명에 불과할 뿐, 결코 다시 나무가 되지는 못한다.

Wenn ein Baum entgipfelt wird, treibt er gern in Wurzelnähe neue Sprossen hervor, und so kehrt oft auch eine Seele, die in der Blüte krank wurde und verdarb, in die frühlinghafte Zeit der Anfänge und ahnungsvollen Kindheit zurück, als könnte sie dort neue Hoffnungen entdecken und den abgebrochenen Lebensfaden aufs neue anknüpfen. Die Wurzelsprossen geilen saftig und eilig auf, aber es ist ein Scheinleben, und es wird nie wieder ein rechter Baum daraus.²⁰

이 나무의 비유처럼 한스 기벤라트의 행복한 유년기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

19 Heinz Stolte, a.a.O., S. 45.

20 UR S. 127.

다. 그의 유년기는 너무 일찍이 강압적으로 파손되고 이에 대한 대체가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스 기벤라트는 성인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유년기 대신에 기계화된 삶과 규범에 얽매인 성인의 삶을 영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부당한 처지의 소년에게 부과된 성인 세계의 요구들은 너무도 과도했다. 결국 그는 그 요구들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여 죽음에서 탈출구를 맞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유년기의 상실은 죽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 작품은 사라져 버린 유년기에 대한 그리움, 즉 천진난만성과 무근심과 무지개빛의 여명에 대한 그리움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²¹ 결국 유년기의 고통스런 상실은 이 소설의 해설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한스 기벤라트는 겪어야 하는 고통이 엄청나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마지막 탈출구인 죽음

작품의 줄거리는 한스 기벤라트가 마울브론의 신학교를 떠남으로써 끝나지 않고 그의 죽음으로 연결된다. 결국 한스 기벤라트는 죽음을 통해서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작품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같은 시각,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태롭게 된 한스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검푸른 강물을 따라 골짜기 아래로 조용히 떠내려가고 있었다. 혐오나 부끄러움이나 괴로움도 모두 그에게서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흘러 내려가는 한스의 메마른 몸통이 위를 푸른빛을 띤 차가운 가을밤이 응시하고 있었다. 시꺼먼 강물은 그의 손과 머리 그리고 창백한 입술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Zu derselben Zeit trieb der so bedrohte Hans schon kühl und still und langsam im dunklen Flusse talabwärts. Ekel, Scham und Leid waren von ihm genommen, auf seinen dunkel dahintreibenden, schwächtigen Körper schaute die kalte, bläuliche Herbstnacht herab, mit seinen Händen und Haaren und erblaßten Lippen spielte das schwarze Wasser.²²

21 Wilhelm Hegeler, Das literarische Echo, Jg. 8, Heft 4 vom 15. 11. 1905, Sp.294 f., in: Adrian Hsia(Herausgeber), Hermann Hesse im Spiegel der zeitgenössischen Kritik, Bern und München 1975, S. 63.

이러한 죽음은 한스 기벤라트가 세상과 이웃들로부터의 소외의 마지막 단계를 마치는 논리적 귀결이다. 엠마에 대한 첫 성적 충동과 알코홀의 영향이 촉매적 기능을 하여 강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던 한스 기벤라트는 이제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한스 기벤라트가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죽음은 결국 번뇌와 의무로부터 해방의 동기로 볼 수 있다. 이 죽음에는 살려는 의지와 삶의 힘겨움이 동시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스 기벤라트의 경우에 자유를 향한 돌파가 오직 죽음에서 성취될 수 있듯이, 모순의 극복은 죽음에서만 가능하다. 죽음은 이성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육체적인 죽음과 동일시될 수 없고, 경험적으로 압박하는 한계의 극복을, 보편적인 실존으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작품의 제4장의 첫 부분에서 이미 죽음에 의한 마지막 탈출구의 가능성이 암시되고 있다.

경험에 의하면 4년에 걸친 수도원 생활에서 각 학년에 걸쳐 한두 명쯤은 중도에 사라지곤 한다. 누군가가 죽게 되면 장송곡과 더불어 땅에 묻히거나 친구들에 의해 고향으로 옮겨지기도 한다. 때로는 제멋대로 수도원에서 도망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칙에 어긋나는 엄청난 죄를 지어 퇴학 처분을 받는 학생도 있다. 매우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상급 학년에서는 청춘의 고뇌에 빠져 방황하는 젊은이가 헤어날 수 없는 방황 끝에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거나 물에 뛰어들어 자살함으로써 짧고 어두운 탈출구를 찾기도 한다.

Erfahrungsgemäß pflegen sich aus jeder Seminaristenpromotion einer oder mehrere Kameraden im Laufe der vier Klosterjahre zu verlieren. Zuweilen stirbt einer weg und wird mit Gesang beerdigt oder mit Freundesgleite in seine Heimat überführt. Zuweilen macht sich einer gewaltsam los oder wird besonderer Sünden wegen entfernt. Gelegentlich, doch selten und nur in der älteren Klasse, kommt es etwa auch einmal vor, daß irgendein ratloser Junge aus seinen Jugendnöten einen kurzen, dunkeln Ausweg durch einen Schuß oder durch den Sprung in ein Wasser findet.²³

그런데 헤르만 헤세는 자살인지 사고인지 한스 기벤라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물론 작품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사항은 그 자신의 주위로부터 소외되고 파괴되어 미래가 없게 된 개인의

22 UR, S. 176.

23 UR, S. 89.

양상이다. 여러 양상에서 볼 때 한스 기벤라트가 스스로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 그의 죽음은 한 어린 인간을 학교의 성적 지상주의와 사회의 많은 규범으로 짓누르며 종속시키는 압박에 대한 저항인 것이다.²⁴ 따라서 이 죽음은 앞선 사건들의 인과적인 결과로 보아야 한다.

VI. 결론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는 세기 전환기에 전통적이던 학교 제도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헤르만 헤세 자신의 체험이 이 작품 줄거리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헤르만 헤세로 암시되는 성장기의 한 청소년의 삶의 특징이 그려지고 있다.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의 걱정 근심 없는 유년기의 자연 체험, 첫 사랑의 충동, 종교적인 사고 과정과 죽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성인들의 잘못된 명예욕에 의한 주인공의 유년기의 상실이라는 동기가 테마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양극적 구조”의 법칙에 따른 두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와 하일너의 구조 관계로 나타난다. 이들 두 주인공은 작가 헤르만 헤세의 양극적인 성격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한스 기벤라트와 하일너 두 주인공으로 암시되는 자서전적 특징과 이중적 자기 투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등장인물들은 단지 이 구조의 배경을 이루어 이 소설은 성격 심리학적 작품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작가는 고통스런 추억에서 벗어나는 길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외에 또 다른 양상이 있다. 작품 속의 유년기의 파괴에 대한 묘사는 헤르만 헤세 당시의 학교와 사회 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평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추억과 또 작가 자신의 직접적인 비평 사이의 묘사로 작품의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작품 줄거리에서 순수 문학적 장르와 거리가 먼 사건인 자서전과 학교와 사회 비평 사이의 엄격한 구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암시된다.

물론 이 소설을 완전한 자서전적 양상으로 일방적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고 또

24 Fritz Böttger, a.a.O., S. 134.

학교와 사회에 대한 순수한 비평만으로 분류되어서도 안 된다. 이 두 양상은 다소간 동등한 가치로 서로 뒤섞여 있다. 결국 작가 헤르만 헤세 개인의 고통스런 유년기의 추억의 묘사는 오늘날 성인 세계의 몰이해로 파괴된 청소년기의 묘사를 실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객관적이고 기록적인 양식으로 묘사된 비감상적인 정직성 때문에 이 작품은 신빙성을 지닌다. 제도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는 논쟁이 아니라, 한 성장기 청소년의 쓰디쓴 학교 체험에 대한 고찰로 이 제도를 비평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의 묘사는 결국 학교 제도의 비인간성과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생각되는 부모와 교육자들의 명예욕에 대한 비평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소설은 오늘날에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성적 제일주의적인 사고에 대한 비평이며 또한 자녀들에게서 근심 없는 유년기의 권리를 빼앗는 사회에 대한 비난도 담고 있다.

참고문헌

- Hesse, Hermann, *Unterm Rad*, Gesammelte Werke in 12 Bänden, 2. Bd. Frankfurt am Main 1976.
- Böttger, Fritz, *Hermann Hesse, Lebem-Werk-Zeit*, Berlin 1974.
- Mileck, Joseph, *Hermann Hesse, Dichter-Sucher-Bekenner*, München 1978.
- Stolte, Heinz, *Hermann Hesse, Weltschau und Lebensliebe*, Hamburg 1971.
- Hsia, Adrian, *Hermann Hesse im Spiegel der zeitgenössischen Kritik*, Bern und München 1975.
- Völpel, Christiane, *Hermann Hesse und die deutsche Jugendbewegung*, Bonn 1977.
- Field G. W. Hermann Hesse, Kommentar zu sämtlichen Werken, in: *Stuttgarter Arbeiten zur Germanistik*, Stuttgart 1977.
- Walter Jens(Herausgeber), *Kindlers Neues Literaturlexikon*, München 1990.

Zusammenfassung

Die Kritik an Schul- und Gesellschaftssystem in *Unterm Rad* von Hermann Hesse

Ahn, Jin-Tae (Kangnung National-Uni)

Dieser Aufsatz versucht, die Konstruktion des Protagonistenpaares Hana Giebenrath und Hermann Heilner sowie die Zerstörung ihrer sorglosen Kindheit in *Unterm Rad* von Hermann Hesse darzustellen.

Unterm Rad steht in der Tradition der um die Jahrhundertwende weit verbreiteten Schulromane. Die persönlichen Erlebnisse des Autors bilden den Rahmen für den Handlungsverlauf der Geschichte. Mit den Motiven der Erzählung wird das Leben eines Heranwachsenden charakterisiert. Angesprochen werden Naturerlebnisse aus der Kindheit des Protagonisten, erste geschlechtliche Regungen, religiöse Gedankengänge, aber auch der Tod. Thematisiert wird mit diesen Hauptmotiven der Verlust der Kindheit durch den falschen Ehrgeiz einer unmenschlichen Erwachsenenwelt. Der Autor suchte nach dem Weg, um sich von schmerzlichen Erinnerungen zu befreien. Die Beschreibung der Zerstörung der Kindheit mündet in eine scharfe Kritik des Schul- und Gesellschaftssystems der damaligen Zeit. Es wird deutlich, dass innerhalb der Romanhandlung eine strikte Trennung zwischen Biographie, literarisch-fiktionalem Geschehen und Schul- bzw. Gesellschaftskritik nicht möglich ist. Diese drei Aspekte werden zu einem Ganzen zusammengeführt. Die Auseinandersetzung mit dieser Thematik bedeutet letztlich auch fast zwingend eine Kritik an den Unmenschlichkeiten des Schulsystems und dem falschen Ehrgeiz von Eltern und Pädagogen. Der Roman entwickelt sich zu einer auch heute noch aktuellen Kritik des reinen Leistungsdenkens und der Gesellschaft.

주제어: 유년기의 상실, 학교 제도, 사회 규범, 학교 소설

Schlüsselbegriffe: Verlust der Kindheit, Schulsystem, Gesellschaftsnormen, Schulroman

필자 E-Mail: ajt@kangnung.ac.kr

투고일: 2006.12.31. / 심사일: 2007.1.24. / 심사완료일: 2007.2.21.